

힐러리, SNS 동영상 통해 대권 재도전 선언

2016 美대선전 막 올랐다

2016년 미국 대선전의 막이 올랐다.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오후 공식 출사표를 던진 게 그 신호탄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선거캠프 홈페이지인 뉴캠페인(New campaign)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2분19초짜리 인터넷 동영상 통해 '중산층 경제'를 강조하면서 "평범한 미국인들은 챔피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그 챔피언이 되고 싶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주부터 곧바로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텍사스)·앤드루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에 불과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를 계기로 몰밀 행보로 이어가던 잠룡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민주·공화 양대 진영의 대선 경선구도가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진영은 초기 대세론을 등에 업은 클린턴 전 장관이 확실한 독주 체제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가운데 각각각색의 잠룡들이 '균용할거' 하며 불꽃 튀는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 무한 경쟁으로 치달던 워싱턴 정치의 무게추가 서서히 대선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 민주당 경선 '힐러리 대세론' = 민주당의 초기 경선 판도는 '힐러리 대세론'으로 압축된다.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짐 웹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링컨 차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현 시점에서 누구도 '힐러리 대항마'가 되기에 역부족이다.

한때 출마설이 나올 조 바이든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6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이 평균 59.8%의 지지율을 보였고 워런 의원은 12.2%, 바이든 부통령은 11.5%를 각각 기록했다. 출마의사를 내비친 샌더스 의원은 4.3%, 오말리 전 주지사와 짐 웹 전 의원은 각각 1.2%의 미미한 지지율에 그쳤다.

당내 반(反) 힐러리 진영에서조차



미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 1947 10월26일 힐러리 다이앤 로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생
- 1965 미 동부 명문 여대 웰슬리 입학, 정치학 학사
- 1969 예일대 로스쿨 진학, 아칸소 주 출신 법학도 빌 클린턴 만남
- 1975 빌 클린턴과 결혼, 아칸소 주로 이주
- 1976 빌 클린턴, 아칸소 주 법무장관으로 취임, 힐러리도 로스 법무법인에 입사해 법조인으로 활동
- 1978 빌 클린턴, 아칸소 주 주지사 당선돼 주지사 부인 역할에 주력
- 1992 빌 클린턴 미 42대 대통령 당선, 힐러리, 파스트 레یدی 활동
- 2001 ~2009 뉴욕 주 민주당 상원의원
- 2008 첫번째 대권 도전 실패,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배로 오바마 후보 지지 선언
- 2009 ~2013 오바마 17기 행정부 국무장관
- 2015 3월, '이메일 스캔들' 국무장관 재직 중 관용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
- 4월12일, 2008년 대선에 이어 두번째 대권 도전 공식 선언
- "평범한 미국인들의 챔피언 되겠다"

연말뉴스

민주, 초반부터 독주체제 '힐러리 대세론'

공화, 잠룡 10명 균용할거... 쟁 부시 주목

"힐러리는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기차"(an unstoppable train)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초기 대세론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초반 독주체제는 지지율이 상승 탄력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내리막을 걸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 공화당 경선 '균용할거' = 공화당 경선판은 다양한 후보들이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공화당 잠룡은 10명을 훌쩍 넘어선다. 크루즈와 폴 의원이 각각 지난달 23일과 지난 7일 각각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13일 지역구인 마이애미에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출마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존 카시오하이오 주지사,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보수 논객인 벤 카슨,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등도 출마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들 후보는 저마다 '힐러리 대항마'임을 자처하고 있지

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클린턴 전 장관과 10% 포인트 안팎의 격차(리얼클리어 폴리틱스, 2월26일부터 3월31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후보들 간의 불꽃 튀는 경쟁과 합종연횡 흐름 속에서 대중적 관심이 공화당 경선으로 기울고 '경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가 현 시점에서 주목하는 예비주자는 부시 전 주지사와 워커 주지사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3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시 전 주지사와 워커 주지사가 각각 평균 17%와 15.8%를 차지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크루즈·폴 의원은 9.2%에 그쳤으며 출마 준비 중인 루비오 의원은 6.8%에 머물렀다.

별써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 간의 대결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젊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워커 주지사는 눈여겨볼 기대주다. 중서부를 기반으로 보수 정체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온건 성향의 부시 전 주지사에 맞설 대항마로 꼽힌다. /연말뉴스

리비아 주재 모로코대사관도 IS 폭탄테러

한국대사관 이어 잇단 공격... 건물 일부 파괴 사상자는 없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 외국 대사관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연계 세력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들로부터 잇따른 테러 공격을 받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리비아 한국 대사관이 무장 괴한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대사관 경비원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13일(현지시간)에는 모로코 대사관에서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연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그 공격 이유와 배경은 아직 불명확하다. IS의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IS가 중동 지역에서 한국 공관을 테러 목표물로 직접 겨냥한 첫 사례가 된다.

◇ 한국·모로코 대사관 피습 =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1시 20분께 차를 타고 지나가던 무장 단체가 트리폴리 아부나와스 지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 40여발을 난사했다. 이 공격으로 대사관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리비아 내무부 소속 외교관 경찰관 3명이 총탄에 맞아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다.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2명과 행정원 1명 등 우리 국민의 피

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해 차량이 대사관을 겨냥했지만, 리비아 경찰관을 겨냥했는지 현재로서는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대사관 외벽을 제외하면 피해가 없다"고 전했다.

이후 13일 새벽에는 모로코 대사관 정문에서 폭발이 발생해 대사관 정문과 대사관 옆 주거건물 일부가 손상됐으나 사상자는 없었다. IS를 추종한다고 밝힌 무장단체는 이날 트위터에 한국대사관과 모로코대사관에 대한 공격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 리비아, 무장단체 난립 = 리비아에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전국적으로 최대 1700개의 무장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리비아 내 IS의 실제적 존재와 규모는 불명확하다.

리비아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IS 대원이 트리폴리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IS를 추종하는 단체가 트리폴리 정부에 충격을 주려고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등에 따르면 IS 세력은 올 초 동부 항구 도시 데르나를 장악한 데 이어 최근 리비아 트리폴리 등 서남부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IS 리비아 지부를 자처한 이들은 지난 2월27일 외국인 5명을 포함해 10명이 숨진 트리폴리의 코린시아 호텔을 공격했다. 미군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리비아 동부 IS 훈련소에서 200여명이 군사 훈련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리비아에는 또 22만 명이 넘는 IS가 명목상 국가 통제를 받는 수십 개의 민병대 소속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체는 지역 민병대 지휘관이나 그 조직과 연계된 정치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고 있다.

트리폴리는 리비아의 최대 상업도시로 세계 각국 대사관과 공관, 다국적 기업, 석유회사 등이 밀집해 있다. 리비아 전체 인구 640만명 가운데 약 200만명이 트리폴리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 총격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지 교민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은 30여명이다. /연말뉴스

중국군 '부패 몸통' 귀보습 전 부주석 체포

명경신문망·보신 "당국 이달내 공식 발표할 듯"

중국군 부패의 '양대 몸통'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는 귀보습(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체포돼 비밀 장소로 압송됐다고 미국에서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12일 베이징(北京)의 군사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민해방군 기율검사위원회, 군 검찰, 총정치부 부위부 병령으로 구성된 합동 수

사대는 이날 십여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베이징에 있는 귀 전 부주석의 자택을 포위후 귀 전 부주석 부부를 연행했다고 명경은 전했다.

체포 병력 중 십여 명은 현장에 남아 가택 조사를 한 후 상당수 가구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매체인 보신(博迅)도 귀 전 부주석 부부가 이날 삼엄한 경비 속에 전격 체

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신은 체포조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호실인 중앙경위국 소속 병력이라고 말했다.

중국군과 사정 당국은 오는 5월1일부터 시작되는 노후철 휴가를 앞두고 귀 전 부주석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 명경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지난 3월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폐막직 후 귀 전 부주석을 체포할 예정이었으나 '양대 몸통' 가운데 한 명인 쉬자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최근 조사 도중 중 방광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체포를 연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신프리모) 5대

대산프리모가발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